국 무 조 정 실
국무총리비서실

보도자료

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. 7. 7.(금) 10:40

한덕수 국무총리, 파나마 공식방문 (7.5-7.7)

- 파나마 대통령 면담, 통상산업부장관·투자고문장관·운하부장관 등 접견, 한-파나마 인프라 협력 간담회, 동포 및 지상사 간담회, 우리 진출기업 인프라 건설현장 방문 등 일정 소화
- 미국 댈러스 경유 계기, 동포 및 지상사 간담회 개최 예정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7.5-7.7 일정으로 파나마를 공식방문하여, 6일 △「코르티소」파나마 대통령 면담 △파나마 각료 접견 △「로요」파나마 운하부장관 접견 △한-파나마 인프라 협력 간담회 △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으며, 7일에는 우리 진출기업의 파나마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.

□ **(파나마 대통령 면담)** 한 총리는 7.6(목) 오전 파나마 대통령궁에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(Laurentino Cortizo)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제반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

○ 한 총리는 민주주의, 인권,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경제·통상, 인프라, 자원·에너지, 국제무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,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방문 이후 13년만에 이루어진 정상급 공식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·발전되길 희망하였다.

※ 파나마는 중미지역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'22년 우리의 對파나마 교역은 총 17.6억불(수출 11.7억불, 수입 5.93억불)로 對중미 8개국 전체 교역(37.5억불)의 47% 차지

○ 코르티소 대통령은 한 총리의 파나마 방문에 사의를 표하면서, 한국과 통상·투자 분야 협력 확대는 물론, 과학기술, 교육, 환경 등 분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였다. 특히, 코르티소 대통령은 도시철도 3호선(Metro Line3)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고 하였다.

○ 한 총리는 코르티소 대통령의 평가에 사의를 표하면서 향후 파나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우리 기업이 추가 참여할 수 있도록 코르티소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.

* ▲현대건설-포스코건설-현대엔지니어링(HPH) 컨소시엄, 도시철도 3호선(28억불, '21.2월 착공) 및 하저터널(11억불, '22.4월 수주) ▲포스코건설, 가툰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(5억불, '21.12월 착공) 및 콜론 LNG 터미널 증설(1억불, '21.12월 착공) 공사 중

□ **(파나마 각료 접견)** 한 총리는 코르티소 대통령 면담 후 페데리코 알파로(Federico Alfaro) 파나마 통상산업부장관, 블라디미르 프랑코(Bladimir Franco) 외교장관대행, 호세 로하스(Jose Rojas) 투자고문장관 등을 접견하여 파나마의 경제통상 정책 등에 대해 청취하고, 양국간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□ **(파나마 운하부장관 면담)** 한 총리는 파나마 운하를 방문, 아리스티데스 로요(Aristides Royo) 운하부장관(1978-1982간 파나마 대통령 역임)과 한-파나마 간 물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
* 2022년 기준 한국은 미국, 중국, 일본, 칠레에 이어 파나마 운하 이용 5위 국가

○ 로요 장관은 “한 총리의 파나마 운하 방문에 사의를 표하며 지난 60여 년간 발전해 온 한국과 파나마의 양국관계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 돈독해졌다”고 하였고, 한 총리는 “세계 해양 물류의 중심지인 파나마 운하가 계속 발전하길 바란다”고 화답했다.

□ **(한-파나마 인프라 협력 간담회)** 한 총리는 7.6(목) 오후 라파엘 사봉헤(Rafael Sabonge) 공공사업부장관 등 파나마 인프라 사업 관련 정부인사들 및 우리나라 인프라 유관 기업인 등과 함께 「한-파나마 인프라 협력 간담회」에 참석하여 파나마의 인프라 및 공공사업 분야에서 향후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○ 한 총리는 한국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있는 파나마의 도시철도 3호선 공사는 양국 인프라 협력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다고 하고, 앞으로도 파나마가 세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한국 기업이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하였다.

○ 사봉헤 공공사업부장관은 한국의 인프라 기업들이 파나마의 고용 창출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, 향후 파나마에서 발주하는 민관협력 인프라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.

□ **(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)** 7.6(목) 저녁 한 총리는 파나마 방문 계기 재외동포 및 현지 진출 지상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.

○ 한 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파나마를 거점으로 중남미에서 뚜렷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면서, 파나마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우리 기업인들과 동포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
※ 파나마에는 대기업 중심 약 20여개 판매법인·지사가 진출, 중남미 다수국가를 총괄 중

○ 또한, 수십년 간 동포들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바,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,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 및 기업인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제안을 당부하였다.

□ 정상급으로는 13년만에 이루어진 이번 한 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은 중미지역 핵심협력국인 파나마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.

□ **(잔여 일정)** 한편, 한 총리는 7.7(금) 오후 우리 기업들이 참여중인 도시철도 3호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며, 7.8(토) 귀국길 경유지인 미국 댈러스에서 우리 재외동포 및 진출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.

※ (참고) 파나마 약황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박영철 (044-200-2136)
		담당자	사무관	황상윤 (044-200-2135)

참고 파나마 약황

❑ 일반사항

- 국 명 : 파나마
- 수 도 : 파나마시티(Panama City, 159만명)
- 인 구 : 약 440만명
- 면 적 : 75,517㎢(한반도의 1/3)
- 인 종 : 메스티소(65%), 원주민(12.3%), 흑인(9.2%), 물라토(6.8%), 백인(6.7%)
- 언 어 : 스페인어
- 종 교 : 가톨릭(84%), 개신교(15%), 기타(1%)

❑ 정치현황

- 국 체 : 대통령 중심제(임기 5년)
- 의회구성 : 단원제(71석/임기 5년)
- 주요인사
  - 대통령 : 라우렌티노 **코르티소**(Laurentino **Cortizo**) ('19.7.1. 취임)
  - 부통령: 호세 가브리엘 **카리소**(Jose Gabriel **Carrizo**) ('19.7.1. 취임)
  - 외교장관 : 자나이나 **테와네이**(Janaina **Tewaney**) ('22.10. 취임)

❑ 경제현황(2022, IMF/WB)

- 국내총생산(GDP) : 719억불
- 1인당 GDP : 16,373불
- 경제성장률 : 10.8%
- 실업률 : 9.9%
- 교역현황 : 210.12억불
  - 수출 : 46.62억불
  - 수입 : 163.5억불
- 외환보유고 : 96억불

❑ 한국과의 관계

- 수교일자 : 1962.9.30.
- 공관창설 : 1973.5.5.
  - 주파나마대사 : 정진규 대사('21.12월 부임)
  - 주한대사 : 아타나시오 코스마스(Athanasio Kosmas) 대사('19.10월 부임)
- 교역현황(2022, KITA)
  - 수출 : 11.7억불(선박, 자동차, 전자제품, 철강, 타이어)
  - 수입 : 5.9억불(선박, 동괴, 중유, 새우, 커피 등)
- 투자 및 기업진출 현황(2022, 산업부, 수출입은행)
  - 총투자누계 : 41.28억불 (실제 투자금액)
  - 투자기업 : 광물자원공사, 삼성전자, LG전자, 한국타이어 등
- 교민현황 : 약 630명(2023.5월)

❑ 주요인사 교류현황

- **(방문)**
  - 05. 9 노무현 대통령
  - 10. 1 이윤성 국회부의장
  - 10. 4 신각수 외교부 1차관
  - 10. 5 김형오 국회의장
  - 10. 6 이명박 대통령
  - 12. 2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
  - 14. 5 송광호 대통령취임식 특사
  - 14. 8 이석현 국회부의장
  - 15. 8 윤병세 외교부 장관
  - 15. 9 정의화 국회의장
  - 16. 6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
  - 18. 3 이낙연 국무총리
  - 18.11 강경화 외교부 장관
  - 18.12 이주영 국회부의장
  - 19. 6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
  - 19. 7 심재권 대통령취임식 특사
  - 19. 9 유희상 감사원 사무차장
  - 22. 8 박덕흠 의원(콜롬비아 대통령 경축특사)
  - 23. 1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
  - 23. 1 신동근 한-파 의원친선협회 대표단
  - 23. 2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
  - 23. 3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
  - 23. 3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
- **(방한)**
  - 01. 7 Alemán 외교장관
  - 02. 3 Arias 외교차관
  - 05.11 Samuel Lewis 제1부통령 겸 외교부장관
  - 06. 9 Graciela Dixon 대법원장
  - 06.11 Ricardo Duran 외교차관
  - 07. 9 Alemán Zubieta 파나마운하청장
  - 10. 5 Duboy 주택부장관
  - 10.10 Martinelli 대통령, Varela 부통령 겸 외교장관
  - 11. 4 Jaen 정부혁신장관
  - 11. 5 Kieswetter 농업개발부장관
  - 13. 5 Roberto Roy 운하부장관
  - 15. 3 Dulcidio De La Guardía 경제재정부장관
  - 15. 7 Luis Ernesto Carles 노동부장관
  - 15. 9 Jorge Barakat 해사청장
  - 16. 1 Luis Miguel Hincapie 외교차관
  - 17. 8 Isabel de Saint Malo 부통령 겸 외교장관
  - 17.10 Victor Urrutia 에너지청장
  - 18. 8 Maria Navarro 외교차관
  - 18.10 Irvin Halman 정부혁신청장
  - 19. 5 Jorge Quijano 운하청장
  - 19.11 Ricaurte Vásquez 운하청장
  - 20.11 Ivette Berrio 보건차관
  - 21.10 Juan Sosa 통상산업부 대외통상차관
  - 22. 7 Carmen Vergara 투자진흥청장
  - 22.11 Marta Gordón 외교차관
  - 23. 4 Gerardo Solis 감사원장
  - 23. 5 Rafael Sabonge 공공사업부장관

❑ 북한과의 관계

- 외교관계 없음